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최 수 경(영남대 박사수료) · 박 인 전(영남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이 숲에서 주위의 사물과 환경을 흥미와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선택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며, 또한 숲이라는 공간에서 여름에서 겨울까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날씨를 체험하게 되고, 매번 다른 상황이 제공되는 숲에서의 자유놀이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경북 P시 소재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집단에 20명(남아 11명, 여아 9명)과 통제집단에 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을 배정하였고, 동질성 검사 결과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유아들은 숲길 탐색에서부터 숲에서의 자유놀이를 주 1회 1시간 30분씩 20주에 걸쳐 실시하였고,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보조자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참여하였다. 반면, 통제집단 유아들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자유선택활동을 교실 내에서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Katz와 McClellan(1997), Hurley(2003) 등의 문헌을 토대로 이혜원(2005)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를 사용하였고, 유아 행복감은 이은주(2010)가 개발하고 신뢰도를 검증한 교사용 유아의 행복감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각 검사의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 한 후, 통계적 분석은 PASW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는데,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test, 사전검사를 공변인수로 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숲에서의 자유놀이 활동은 유아의 전반적인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정서조절, 정서성, 또래관계기술, 사회적 규범이해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다. 둘째, 숲에서의 자유놀이 활동은 유아의 전반적인 행복감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몰입, 건강, 영성, 또래관계, 교사관계, 인지 및 성취, 정서, 부모관계, 생활만족에 대한 감정을 증진시키는데도 효과가 있었다. 유아들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서로간의 배려와 공존, 상호의존적이고 순환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의 인식을 통해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고, 사회적 유능감으로 확장되어 내면화된다. 또한 자연은 그 자체로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숲에서의 활동들은 유아들에게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인 학교폭력, 따돌림, 생태계 파괴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유아기에서부터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아교육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